

일반

소유하는 ‘집/가족’에서 돌봄의 커먼즈로

공유주거 ‘빈집’을 통해 보는 커먼즈의 돌봄윤리*

Ethics of care in commons: Transitioning from the ‘home/family’ ownership to
a caring commons via Bin-Zib, a co-housing experiment

한경애**

본 논문은 커먼즈 관점에서 돌봄을 둘러싼 미시적 주체화의 과정을 분석하고 페미니스트 돌봄윤리를 정교화한다. 커먼즈는 인간의 실존적 ‘위태로움(precariousness)’ 위에 구성된 공통적인 삶의 양식이다. 그러나 커먼즈를 해체하며 시작되는 자본주의는 살림살이의 목적을 전도하고 타인을 향한 행위인 ‘돌봄’을 종획하여 사유화된 집/가족 내부에 가둔다. 논문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커먼즈적 살림을 재활성화하고자 한 ‘빈집’의 사례를 통해 커먼즈가 지배적인 ‘일’과 ‘집’의 형태를 바꾸는 과정이며 돌봄이야말로 이를 위한 주체화의 핵심 장소임을 드러낸다. 타자와의 상호의존성이 불러오는 양면성을 적극 끌어안으며 넓은 돌봄의 관계망을 직조하고자 한 ‘빈집’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돌봄-관계를 인식하고 참여할 것을 요청받는다. 여기서 돌봄은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산주의적 관계에 연루시키기 위한 협업일 뿐 아니라 돌봄의 능력을 확장하는 집단적 ‘되기(becoming)’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주요어: 돌봄, 공산주의, 커먼즈, 집/가족, 주체화

* 이 논문은 202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서 (2023S1A5B5A16077822), 2021년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 지리환경학과에서 박사논문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신 신현방 선생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urbancommonz@gmail.com)



1. 서론

점점 확장되는 극심한 불안정성(precarity) 속에서,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삶의 방식과 이를 지탱하는 근대적 윤리를 근본적으로 전복할 것을 요청하는 페미니스트 돌봄윤리(feminist ethics of care)가 주목받고 있다. 돌봄윤리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발전된 정의윤리(ethics of justice)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Gilligan, 1982). 인간을 합리적 개인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의윤리는 자유주의 세계의 근간을 형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며, 돌봄 속에서 나이 들고 죽는다. 돌봄윤리는 살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위태로움(precariousness)과 세계의 근본적 상호의존성을 전제하며 '자립적 개인'의 허구성을 드러낸다.¹⁾ 지난 몇 년간의 팬데믹과 사회적·생태적 위기가 불러온 돌봄위기는 공동체의 재생산과, 이를 위한 핵심적 활동으로서의 돌봄을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윤리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Chatzidakis et al., 2020; Mckinnon et al., 2022). 페미니스트 돌봄윤리는 돌봄을 범주화된 활동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복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Fisher & Tronto, 2003: 34)으로 정의한다.

국내의 돌봄연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에 집중하며 돌봄을 개인적 삶의 질의 문제로 축소하거나(최희경, 2010; 2011), 돌봄을 임금노동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강조하거나(김경희·강은애, 2010), 국가의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송다영, 2014).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돌봄이 어떻게 개인화되는지 강조하거나(이아승,

1) 주디스 버틀러(Butler, 2004)의 개념으로 잘 알려진 'precariousness'은 한국에서 주로 '취약성'으로 번역되어 왔지만, 본고는 '위태로움'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한다. 구조화된 취약성(vulnerability)과 달리 '위태로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버틀러가 "위태로운 존재들의 함께함(precaious being-together)"이라고 표현한 사회적 삶의 실존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2020), 경제발전 중심의 사회를 돌봄(혹은 보살핌)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돌봄의 사회화를 보편적 윤리의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사회정책 설계와 국가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철학적이거나 거시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희강, 2016; 마경희, 2011; 허라금, 2006; 2018).

문제는 돌봄이 근본적으로 상황적이며 관계적인 활동이기에 보편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Hankivsky, 2004; Usher, 2012). 게다가 돌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의 필요를 결코 완전히 알거나 정의할 수 없는 ‘타자’를 향한 활동이다(Barnett, 2005; Tronto, 1993). 바넷과 랜드(Barnett & Land, 2007)가 지적하듯이 돌봄의 보편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공통의 인류를 상상하며 인식론적 제국주의에 빠질 우려를 범하기 쉽다.

본 연구는 보편성의 윤리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페미니스트 돌봄윤리가 지향하는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도구로 ‘커먼즈’를 제시하고, 타자를 향한 실천인 돌봄이야말로 커머닝의 정치적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커먼즈 운동의 미시정치 분석을 통해 논한다.

커먼즈 이론가들은 자립적 인간이라는 통념, 그리고 일상생활에 스며든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개념에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점에서 돌봄윤리와 세계관을 공유한다(De Angelis & Harvie, 2014). 또한 커먼즈를 단지 ‘공동의 자원’이 아닌 관계, 서로 다른 것들의 마주침과 섞임을 통해 생성되는 복수의 집합적 삶으로 개념화해 온 시도들은 돌봄윤리가 제시하는 관계론적 인식론과 깊이 공명한다(Tsing, 2015).

돌봄을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적 실천으로 포착하고 이를 커먼즈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국내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표시되는 한국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돌봄의 조직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운동의 사례나(박윤희·백일순, 2021) 복지 커먼즈(welfare commons)의 중요성에 주목하거나(백영경, 2017a; 2017b), 지역살림운동의 일환으로 구성된 지역돌봄을 통해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가능

성을 가늠하는 시도(홍덕화, 2018)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커먼즈가 '생산(production)'에 대한 강조 속에서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온 '재생산(reproduction)'과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생산과 재생산의 인식론적·실천적 분리를 넘어서고, 삶의 재활성화, 즉 '살림'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이라는 점(Federici, 2018; 2020)은 보다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커먼즈 논의는 증폭되는 삶의 불안정성이 커먼즈를 해체하며 시작되는 근대의 고유한 경험이라는 것(Lorey, 2015; 2017), 근대적 '일'과 '집'의 지배적 형식이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돌봄'을 체계적으로 비가치화하고 왜소화했음을 보여준다(Fernández Arrigoitia et al., 2023; Wainwright, 2012).

커먼즈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돌봄이 사회적 관계 그 자체라는 점이다. 돌봄의 위기가 개별 가정에서 해결할 '사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복지 커먼즈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지만, 마이클 하트(Hardt, 1999)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봄은 본질적으로 정동적인 활동이며, "사회적 네트워크들, 공동체의 형태들, 삶능력(biopower)"을 생산한다(정용택, 2016도 참고). 이는 가족, 국가, 시장이 상호 보완하며 만들어 내는 근대적 돌봄 형식이 돌봄을 특정한 형태로 종획하고 왜곡할 뿐 아니라 그에 조응하는 몸과 감각을 (재)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논의하겠지만 근대의 돌봄 형식은 커먼즈를 해체하며 시작된 임노동 관계가 살림살이의 목적을 전도하는 과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감각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근본적인 상호의존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편재된 돌봄을 감각하고 돌봄을 삶의 중심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을 다르게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커먼즈는 돌봄이 '주체화(subjectivation)'의 문제임을 보여준다.²⁾

2) 본 논문에서 '주체화'라는 개념은 자크 랑시에르(2013; Rancière, 1992)의 정의를 따른다. 이는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나눔"을 바꾸는 과정이며, 그럼으로써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본 연구는 서울에서 ‘집’을 커먼즈로 바꾸고자 한 풀뿌리 커먼즈 운동에서 돌봄이 주체화의 핵심적인 장소로 발견되고 돌봄-주체가 만들어지는 미시적 주체화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커먼즈와 불안정성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점검한다. 불안정성은 커먼즈를 해체하며 등장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이다(Lorey, 2017). 자본주의는 생산(일)과 재생산(집), 그리고 공적 영역(과 그를 담지한 것으로서의 국가)과 사적 영역(과 그를 담지하는 개인 및 가족)의 분리를 통해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근대적 삶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치해 왔다. 이러한 통치 과정은 삶을 재활성화하는 활동인 ‘살림’과 살림에 필연적으로 내재된 돌봄을 비가치화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자를 향한 활동인 돌봄을 소유와 지배의 형식으로 종횡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윤리를 통한 삶의 재구성이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횡단하며 커먼즈의 실존적 조건인 인간 삶의 위대함을 나누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서울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선구적 주거 커먼즈 운동인 ‘빈집’의 사례를 조명한다. ‘빈집’은 2008년 서울 해방촌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유주거 실험이다.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시작된 ‘빈집’은 공유주거 운동으로 전환했으며 한국의 의식적인 공유주거의 첫 번째 사례이자 급진적인 참조점이 되었다. 15년 동안 20개가 넘는 ‘빈집’, 두 개의 협동조합 카페가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해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빈집’이 해산하고 현재 ‘빈집’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공유주거 공간은 영등포에 하나가 남아 있을 뿐이지만, ‘빈집’의 보다 안정적인 확장을 위해 2010년 고안된 대안금융 실험 ‘빈고’가 2023년 현재 485명의 조합원과 59곳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연결하며 계속되고 있다. 즉, ‘빈집’은 동일한 정체성의 공동체를 확장하는 대신 다양한 대안 공간이

수 있게 되는 과정, 즉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윤영광, 2014 참고).

생성될 수 있는 넓은 토양을 일구는 금융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³⁾

본 논문이 분석하는 내용은 '빈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하에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공동주거의 실험들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발견되고 경험된다(권지용, 2016; 김혜경, 2017 참고). 그럼에도 본 연구가 '빈집'을 분석의 사례로 삼은 이유는 '빈집'이 임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주거를 커먼즈로 구성하고자 하는 실천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일'과 '집'을 둘러싼 밀도 높은 분쟁의 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빈집'의 분쟁은 커먼닝이 지배적인 '일'과 '집'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참가자 스스로가 변화하는 주체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빈집의 참가자들은 그러한 분쟁의 과정에서 돌봄을 주체화의 핵심적인 장소로 발견하며 돌봄과 커먼즈(커먼닝), 주체화의 관계를 둘러싼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커먼즈 운동으로서의 '빈집'의 가능성과 어려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본주의라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커먼즈를 구성하고자 한 실험의 참가자들이 돌봄을 중심으로 한 집합적 '되기'의 과정에 휘말려드는 미시정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2013년과 2018년에 각 4개월간 '빈집'에 투숙객으로 머무르며 수행한 민족지적 현장연구와 40명의 인터뷰, '빈집'의 위키 페이지 및 웹사이트와 투숙객들의 개인 블로그를 망라한 아카이브 연구에 기반한다.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해 발표된 글의 경우 발표자가 명시한 이름을 사용하며, 인터뷰의 경우 참가자들의 희망에 따라 빈집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쓰거나 가명을 사용했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절에서는 인간이 다양한 커먼즈를 구성하고 그에 의지해 살아온 실존적 조건으로서의 위태로움이 어떻게 자본주의적 불안정성으로 재배치되고 통치되어 왔는지, 그 속에서 등장한 지배적인 '집'과 '일'

3) '빈고'가 어떻게 자본주의적 금융을 커먼즈/돌봄의 네트워크로 전환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의 형식이 어떻게 돌봄을 체계적으로 비가치화하고 식민화했는지 이론적으로 논한다. 3절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시작한 ‘빈집’의 예시적 실험이 시작부터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일과 집/거주의 형식으로부터 탈주선을 그리고 있었음을 설명한다. 4절은 ‘빈집’의 투숙객들이 커머닝의 실험 속에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돌봄이 어떻게 커머닝의 중심적 장소로 등장하는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봄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적 돌봄이 품고 있는 소유의 언어로부터 적극적으로 분기하며 집/가족을 둘러싼 감각의 변화와 주체화의 과정을 추동하는지 논한다. 마지막 5절은 인간의 실존적 존재조건으로서의 위태로움을 자본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나누는 수행적 실천으로서 돌봄윤리와 커먼즈의 함의를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2. 커먼즈의 분할을 통한 위태로움의 재배열, 돌봄의 축소와 비가치화

경제학에서 커먼즈는 주로 공동체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이해되었지만 (Ostrom, 1990),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사회적 관계와 실천에 내재한다. 다시 말해 커먼즈는 ‘동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Linebaugh, 2008; Negri & Casarino, 2008). 라인보우(Linebaugh, 2008)가 지적하듯이 인간에게 있어 커먼즈는 무엇보다 노동과정에 뿌리내린 것이며 인류가 생계를 조직해 온 기본 방식이었다(Caffentzis & Federici, 2014도 참고).

본 논문은 커먼즈를 사람들이 자신들이 놓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과 나눔을 조직함으로써 공동의 삶을 재생산해 온 다양한 삶의 생산양식으로 정의한다(한경애, 2022: 16).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Graeber, 2014)가 설명하는 ‘공산주의(communism)’는 인간이 노동과 나눔을 조직하는 무수한 방식의 가장 밑바탕을 구성하는 공통의 원리, 즉 커먼즈의 구성원리를 포착한다. 그레이버에 의하면, 모든 인간 사회에는 ‘등가교환(reciprocity)’, ‘위계(herarchy)’,

그리고 '공산주의(communism)'라는 세 가지 도덕원리가 혼재된 채 그중 하나가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지배적인 원리는 사람들이 인간과 세계를 상상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등가교환이 지배적인 원리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보편적 인간상으로 상상된다. 하지만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공산주의의 원리아말로 인류가 "보다 큰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며 다양한 커먼즈를 구성해 온 원리였다(ibid., 176).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실존적 위태로움은 커먼즈의 존재론적 기반이 된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인간, 비인간을 포함한 무수한 타자들과 생태정치적 방식으로 관계하며 마르크스(Marx, 1973a)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물질교환, 혹은 "신진대사(metabolism)"라고 부른 활동, 즉 '노동'을 수행하고 그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잉여물을 다양한 스케일로 겹쳐지는 공동체적 관계들 속에서 타자들과 나눈다. 공통의 노동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잉여를 순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땅과 숲, 갯벌과 하천, 바다와 같은 세계의 일부가 다양한 공유지-커먼즈로 구성되고, 두레나 품앗이, 계와 같은, 각 사회의 고유한 노동-커먼즈와 금융-커먼즈의 관행들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커먼즈들은 사회적·문화적·종교적인 다양한 차원의 실천과 촘촘하게 얽히며 다양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한다.

커먼즈를 구성하고 커먼즈에 의존하는 민중의 살림살이는 각각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살림살이에서 경제(oikos, 집과 가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이코노미의 어원)는 사회와 얽혀 있다. 칼 폴라니(1998)는 이러한 살림살이를 "사람의 살림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와 삶을 재생산(reproduction)하는 것, 즉 안드레아스 베버(Weber, 2019)가 삶의 활성화로서의 "살림(enlivenment)"이라고 부른 것이다. 삶의 활성화를 위한 살림살이에서 '일'과 '집', 혹은 '생산'과 '재생산'은 구분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함께

노동하고, 그 노동의 산물을 다시 공동체 내부의 필요에 기반해 순환시킴으로써 삶과 공동체적 관계를 재생산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은 타자와 함께 삶을 꾸리고 재생산하는 동시에 삶과 돌봄의 단위인 공동체, 즉 ‘집’을 만드는 활동이다.

페미니스트 돌봄윤리가 돌봄을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복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Fisher & Tronto, 2003)으로 정의할 때 돌봄은 (공산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커머닝의 활동들과 같은 의미값을 갖는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이에게 준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성장한 아이가 노모를 돌보더라도, 그 행위는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애당초 아이가 무사히 성인이 되거나,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평등한 두 개인 사이의 공평한 거래, 즉 ‘빚’도 ‘의무’도 없는 관계를 전제하는 ‘등가교환’과 달리 공산주의는 서로에게 빚진 세계, 그러므로 무언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내주는 관계, 즉 “사회가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영원성”을 전제한다(Graeber, 2014: 65).

문제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얼마나 넓은 ‘집’=상호의존성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넷과 랜드(Barnett & Land, 2007)의 논의는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돌봄 담론에서 돌봄이 부족한 자원처럼 취급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주장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인간관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낯선 이에게 돌봄과 환대를 베푸는 많은 “관대한” 사회에서 돌봄은 부족한 자원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넓게 퍼져 있는 것이다. 각각의 사회는 관대한 돌봄, 혹은 그레이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산주의의 원리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관대함의 윤리, 혹은 공산주의는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하는 관행과 성향”이자 “사회성, 공동체, 함께함의 구성적 실천”이다(Barnett & Land, 2007: 1073). 공산주의야말로 “타자와 관계 맺는 윤리”로서의 돌봄(McEwan & Goodman, 2010)의 기본 원리를 담지한다. 타자를 향한 행위로서의 돌봄은 상호의존의 세계로서의 커먼즈를 실천적으로 구성한다.

한편, 역사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는 다양한 물질적·사회적 커먼즈를

해체하고 사람들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만들면서 시작된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한 개인으로서 상품세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지만, 노동력의 매매는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즉, 마르크스(Marx, 1973b: 526)가 지적했듯이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그가 가난뱅이, 잠재적 가난뱅이임을 암시"한다. 임노동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경험으로써의 '불안정성(precaarity)'을 구성한다(Lorey, 2017; Neilson & Rossiter, 2008).⁴⁾ 말하자면 '불안정성'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위태로움'을 자본주의적으로 재배열한 결과이다.⁵⁾

'돌봄'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커먼즈의 해체가 '임노동'과 '핵가족'이라는 근대에 고유한 '일'과 '집'의 형태를 구축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커먼즈에서 뜯겨 나와 낱알의 '개인'으로 화폐의 세계로 진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은 먹고살기 위해 자신이 팔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된다.⁶⁾ 즉, '임노동'이 노동의 지배적인 형식으로 등장한

4) 불안정성을 둘러싼 논의는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지만, 서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의 해체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은, 복지가 작동한 적이 없는 3세계의 인민들에게는 언제나 일상이었다. 즉, 불안정성은 "자본주의 노동의 표준적 경험"이다 (Mitropoulos, 2005). 로라이(Lorey, 2017)는 신자유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불안정성'이 아니라 통치수단으로서의 '불안정화(precairization)'라고 주장한다(불안정성과 불안정화에 관해서는 한경애, 2023 참고).

5)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삶이 목가적이었다거나, 커먼즈의 해체 과정이 단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각 사회의 토착적 상황 및 다양한 외부조건이 놓인 구체적 맥락에서 결합하고 굴절하며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서로 다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얼룩덜룩한 구성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자본주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적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노동하고 관리해 온 다양한 커먼즈들이 울타리 쳐지고 사유화되며 알몸뚱이의 임노동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6)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 상품이 아니던 것들, 즉 토지와 같은 자연 자원과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 된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커먼즈에서 인간과 무수한 비인간 주체, 이들의 총체로서의 자연은 인식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연결되어 결코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클로저와 상품화 과정은 인간(주체)과 자연-자원(객체)을 나누어 자연-자원을 상품화하는 한편, 인간(주체)을 다시 개인과 그가 소유한 노동력으로 쪼갬으로써 노동

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념과 노동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린다. 근대사회의 주체는 더 이상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한 개인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넓게 펼쳐진 생명의 상호의존관계와 긴 시간성 위에 그려지는 커다란 선물의 순환 속에서 서로에게 근원적으로 빚진 자들로서 관계 맺는다면(Graeber, 2014; Mauss, 2002), 근대의 개인은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는 독립적 ‘소유자’이자 자유롭고 동등한 계약자로서 관계 맺는다(Macpherson, 1962). 국가는 이들의 원초적 권리인 ‘사적소유’의 원칙 위에서 개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치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물인 노동력을 시간 단위로 판매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동안 자신의 노동에 대한 주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노동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구매자(자본가)의 목적인 ‘이윤생산’에 복무하는 과정이 된다. 즉, ‘임노동’은 이윤생산을 위한 노동만을 ‘생산(production)’으로 승인하는 체제를 수립한다. 비교 불가능한 질적 가치를 생산하던 인간의 다양한 활동은 경제적 ‘생산성’ 개념에 기반해 양적으로 비교되고 위계화된다(Fortunati, 1995). 커먼즈의 경제, 혹은 인간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인간과 삶의 (재)생산을 위한 활동은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자연의 활동, 즉 ‘재생산(reproduction)’으로 범주화되고 젠더화된다.⁷⁾

이러한 변화는 노동의 목적과 패러다임은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극적으로 바꾼다. 동시에 이는 이러한 새로운 노동의 형식과 목적에 조응하는 ‘집/가족’의 등장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자본주의의 성립은 인간을 ‘개인’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생산성’을 잣대로 삼아 사회와 인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하

력을 상품화한다.

- 7) 노동의 분업과 위계화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수정되어 왔다. 현재 재생산과 돌봄노동은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위계의 아래에 위치한다(Fantone, 2007; La Deriva, 2004).

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인 노동력(인간)은 기계가 아니므로 공장에서 제작할 수 없으며,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에게도 빚진 것 없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실존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가성비 좋은 개별 노동력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둘러싼 개입이 필수적이다.

페데리치(Federici, 2004)는 자본주의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삶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었던 돌봄과 살림을 '자연화'하고 '젠더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다. 이는 '집/가족'을 둘러싼 특정한 관념과 실천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가족은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넓게 공유함으로써 삶의 위태로움을 나누는 살림살이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것은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Engels, 1942; Mumford, 1961). 그러나 넓고 느슨했던 가족 개념/실천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남성 부양자가 돌보는 핵가족으로 축소되고, 이는 국가 폭력을 동반한 다양한 이념적·제도적·담론적 장치들에 의해 '정상화'된다(Federici, 2004; 이진경, 2000; 뒤바·페로, 2002; 조은주, 2018). 물론, 남성 가장이 지배권을 쥐고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제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했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훨씬 강력한 것이 된다(미즈, 2014).

이성애적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적 핵가족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인 동시에 사적소유권의 형식에 가장 부합하는 공동체의 단위이기도 하다(Engels, 1942; Kollontai, 1920). 공동체적 관계를 만드는 돌봄의 실천은 '가족'으로 표상되는 좁은 영역에 갇히고 사유화된다.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인식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종횡하며 만들어진 '사적 공간'인 근대적 집 내부에서 경제적 돌봄은 여타의 돌봄보다 우월한 것이 되며 위계화되고, 돌볼 수 있는 능력과 돌봄에 대한 필요 사이의 차이는 명확해진다. 돌봄은 우월한 돌봄-제공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천되며 지배, 혹은 소유의 형식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소유하고), 남성이 여성을 돌본다(소유한다). 이러한 가족의 주인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은 회사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이홈’의 이상은 임노동에의 종속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경제성장기 소위 1세계 국가들은 대량고용(일명 포드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를 통해 불안정성을 통치하는 복지국가를 형성했지만 이는 거세지는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하는 모델로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일과 집의 분리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전략과 조응하며 돌봄을 둘러싼 자본주의적 관념/실천을 강화했다(Lorey, 2017). 또한 1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복지제도가 작동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곧장 회수되었다는 점에서도, 포드주의적 복지는 극히 “예외”적인 형식이다(Neilson & Rossiter, 2008).

이런 맥락에서 돌봄윤리가 추구하는 인식론적 전환은 단지 포드주의적 안정성, 안전한 고용과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핵가족’이라는 사적 영역, 혹은 ‘복지’라는 공적인 형식을 통해 주어지는 근대적 돌봄의 형식을 넘어 상호의존적 삶을 재구성하는 커머너로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살림살이의 목적을 이윤추구에서 인간과 삶의 (재)생산으로 되돌리는 것은 쪼그라 들고 왜곡된 ‘돌봄’을 삶의 중심으로 재위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는 지배적인 ‘일’과 ‘집’의 실천에 도전하고 위태로움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연인의 관계조차 손익을 계산하는 언어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과 다른 관계를 이 사회의 내부에서부터 조직할 수 있을까? 바넷과 랜드(Barnett & Land, 2007)가 강조하듯이, 돌봄은 단지 도덕이나 의무가 아닌 정치의 문제이다(허라금, 2018도 참고). 등가교환, 혹은 임노동의 관계를 벗어나 공산주의적 관계를 확대하고자 한 ‘빈집’의 투숙객들이 돌봄을 주체화의 장소로 발견하고 ‘집/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서로를 돌보는 방식)과 그것을 지배하는 원리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라는 정치의 문제임을 생생히 보여준다.

3. 일상적 공산주의의 확장을 통해 다른 집 짓기

1) '빈집', 일상에서 확대하는 여행자의 공산주의

'빈집'은 1970년대에 태어나 1990년대 대학 생활을 한 소위 X세대로 30대에 들어선 청년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운동이다. 이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낮은 시골로 이주하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도시 한가운데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들이 찾은 답은 함께 삶으로써 보증금을 나누고 월세를 줄이는 것이었다.

임노동에서 (가능한 한) 탈주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고 나눌 '공간'이 필요하다. 이들은 각자가 갖고 있던 보증금을 모은 4천 만 원에 8천 만 원을 대출받아 방 세 개에 옥상이 딸린 전셋집을 얻은 후 그곳을, '가난한 자들의 집', '손님들의 집', '비어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빈집'이라 명명하고 누구나 와서 같이 살 수 있다고 선포한다. 즉, '집'은 그들이 대안적 가치를 실현할 실험을 위해 마련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었던 셈이다.⁸⁾

그들은 '빈집'을 누구나 올 수 있는 '공유지'로 선포하고 성대한 집들이를 연다. 첫 한 달의 시범운영을 통해 결정된 것은 '빈집'에 머무는 누구나 매달 공과금, 대출한 전세금의 이자, 기본적인 식재료와 생필품 비용을 위한 분담금을 낸다는 것, 그리고 그 분담금은 개개인이 '빈집' 전세금에 출자를 했는가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첫 달의 운영비용과 투숙객의 수를 기준으로 분담금의 액수는 "매일 2000원 '이상'", 혹은 "매달 6만 원 '이상'"으로 정해졌

8) '공동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함께' 사는 선택을 한 것은 주거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던 현실, 즉 서울의 극심한 투기적 도시화라는 맥락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Han & Imamasa(2015)를 참고할 것.

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적자를 위해 적립하기로 한다.⁹⁾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1년 동안 세 채의 ‘빈집’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빈집의 참가자들은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공간인 ‘빈집’에 공식적인 규칙은 없으며 여러 사항들을 그때그때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빈집’은 가장 중요한 구성원리를 그 이름에 새기고 있다. ‘빈집’의 실험이 시작된 첫 번째 달, ‘빈집’의 위키 페이지와 홈페이지 대문에 게시된 소개글은 ‘빈집’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칙을 잘 보여준다.

게스트하우스(Guests' house) 빈집은 “손님들의 집”입니다. 보통의 게스트하우스(Guesthouse)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들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자는 공간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빈집에는 서비스를 해주는 주인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빈집에는 주인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 왔던 사람들, 현재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올 사람들 역시 모두 빈집의 주인들입니다. 당신 역시 이 빈집의 주인들 중 하나입니다.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하십시오. 당신은 빈집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 전에 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가꾸고 준비해 온 것들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베푸는 호의를 맘껏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들에게, 그리고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가꾸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변해가고, 그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빈집은 변해갈 것입니다. 빈집은 비어 있는 집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누구든 맞아들일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빈집은 이름마저도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빈집’ 홈페이지, 2008).

9) 이 적립금은 이후 커먼즈 은행 ‘빈고’를 설립하는 기틀이 된다.

연구자는 '빈집'의 원칙을 '일상에서 확대하는 여행자의 공산주의'라고 명명한다. '빈집'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며 각자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공간을 기꺼이 나누는 관계, 즉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의 원리에 의거한다. 동시에 '빈집'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공간이 어떤 단일한 믿음이나 신념 아래 모인 사람들의 동질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체류 기간이 짧긴 길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바랐다. '게스트하우스'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듯이 '빈집'은 애당초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호의를 갖고 대하지만 위계도 구속도 의무도 없는 평등한 소통방식을 모델로 한다.¹⁰⁾ '빈집'의 이러한 암묵적 원리는 초창기 '빈집'을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2) '이상한 나라의 빈집'에서 지배적인 일과 집으로부터 탈주하기

많은 장기 투숙객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빈집'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 아무런 질문도 조건도 없이 즉각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별명으로 불렀고,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말했으며, '빈집'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잔치와 술자리, 여러 행사들은 '빈집'에 처음 온 사람들이 기존의 투숙객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왔다.¹¹⁾ 빈집에 처음 온 사람들은 기존 한국 사회와 동떨어진

10) 여행자들은 이해와 요구가 맞는 한 동반자가 되지만, 불편함이나 강요가 끼어든다면 그 관계는 곧 끝나기 마련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은 (곧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며 공산주의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등가교환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지역민에게 초대받거나 낯선 이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을 소중한 무용담으로 여기는 한편 '지나치게' 상업화된 여행지에 대해 투덜거리는 것은 사람들이 여행에서 '공산주의적' 관계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1) '빈집'은 나이와 무관하게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며 동등한 위치에서 말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는 빈집의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되고 나누어진 인터넷 공간인 '진보넷'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이후 빈집의 분위기를 경어/평어의 구분에 의거한 언어적 위계

빈집에 대한 그들의 인상을 “해괴한”, “이상한”, “별천지” 등의 단어로 표현하곤 했는데, 이 해괴함의 핵심에 있던 것이 바로 투숙객들이 만들었던 ‘일’과 ‘집’에 대한 감각이다.

우선, 일에 관한 한 ‘빈집’의 초기 구성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자’하는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많은 투숙객들이 백수였고, ‘빈집’에 놀러왔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투숙객이 된 사람들이 백수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평균 생활비는 놀랄 만큼 낮았는데,¹²⁾ 이는 공동생활로 인해 집세를 절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노동관계 및 소비문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될 수 있는 한 뭉든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와 맞물려 제한적인 경제적 여건마저 능동적으로 즐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감각은 생태의식과 연결되어 옥상에는 텃밭이 생겼고 생필품 제작과 술 빚기 등의 워크숍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상상과 아이디어들이 흘러나오고 많은 것들이 실제로 시도되어 “빈집은 빈말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말이 빈집의 유행어가 되기도 한다. 초기 ‘빈집’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임노동관계를 벗어나 앙드레 고르(Gorz, 1989: 154~169)가 “자율노동”과 “자활노동”이라고 부른 것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공감대를 뚜렷이 형성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2까지 운영된 ‘해방촌 일놀이터 빈가게’,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카페 해방촌’은 ‘빈집’ 투숙객들이 임노동을 벗어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며 그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만들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안토니오 네그리(2004)가 “자기가치화”라고 부른 것을 시도한 실험이다. 그러나 ‘빈집’ 사람들의 아지트에 머무르고 만 첫 번째 시도는 가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최저시급도 만들지 못하며

를 중심으로 짜여진 한국사회의 문화와 현저히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12) 2008~2010년 사이 ‘빈집’ 투숙객들의 평균 생활비는 한 달 30만 원이었다. 2009년 한국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한 달 46만 원을 웃도는 금액이었는데, 이 액수가 시민사회로부터 생존권을 침해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백승호, 2008) ‘빈집’의 생활비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좌초한다. 두 번째 카페는 '빈집'의 아지트를 넘어 해방촌의 카페로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마을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으나, 해방촌이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물결에 휩싸이며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카페의 실패는 '일'을 둘러싼 '빈집'의 실험이 자기가치화의 공간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음을 보여준다.¹³⁾

'일'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요한 실험은 '살림', 즉 재생산을 둘러싼 노동의 영역에서 벌어졌다. 특히 함께 살기 위해 '타인의 가사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빈집' 초창기 투숙객들은 살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살림은 어떻게 반자본주의적인 삶을 꾸릴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살림에서 터튼 많은 사람들이 '빈집' 생활을 통해 '환골탈태'했던 이 시기에 '빈집'에서 자주 언급되는 슬로건은 "혁명은 부엌에서 시작된다"였다.

한편, '집/주거'와 관련해 '빈집'의 특이성은 개인 방이 없거나 유동적이라는 점이였다.¹⁴⁾ 이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손님들의 집'이라는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빈집 준비 단계에서 공유주거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빈집을 시작한 사람들은 개인방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집을 함께 사는 '공유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적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구분을 가로지르는' 자율공간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기 위한 일련의 독서를 시작한다. '빈집'을 구성한 멤버 중 한 사람인 지음(2008, 2월 13일)은 당시 이러한 기록을 개인 블로그에 남겼는데, 당시 그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다. 첫째, 이상적인 집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 그리고 공과 사의 근대적인 분할 위에서

13) 지면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카페에서 '빈집' 투숙객들은 잉여의 분배를 둘러싸고 독특한 재분배, 즉 금융의 실험을 했다.

14) 두 번째 '빈집'부터 한시적인 개인 공간이 생기기도 하지만 첫 번째 '빈집'의 공간 구성은 이후의 '빈집'들에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했다.

구축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일과 정치, 일상생활은 인식의 차원에서도 실천에 차원에서도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찰은 모든 방이 함께 쓰는 것이며 또 모든 공간이 유연하게 다 목적으로 활용되는 첫번째 빈집의 공간구성에 반영되었다.

4. ‘빈집’의 재생산과 주체화의 장소로서의 ‘돌봄’

‘빈집’이 늘어나면서 투숙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현실에서 ‘빈집’은—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여행자들이 마주치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일상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갈등은 무엇보다 ‘빈집’의 공동생활에 대한 투숙객들의 다양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단지 투숙비가 싸다는 이유로 ‘빈집’에 머무르는 투숙객들도 늘어났는데, ‘빈집’을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태도는 큰 위협이 되었다.

다들 돈이 없어서 같이 사는 건데, 여기선 돈 아끼고 다른 데서 돈을 많이 쓴다던가. 우리가 (처음에) 정한 최소한의 분담금이 2천 원 이상인데, 이 ‘이상’이 더 중요한 거였거든요. 실제 모두 2천 원만 내서는 ‘빈집’의 바퀴가 굴러갈 수 없어요. 일하는 것도 자기가 먹은 것만 치울 수 있는데, 늘 잉여분이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담금도 더 내는 사람이 있고, 일도 더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분담금이나 일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우리는 자본주의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는 방식인데, 그걸 철저히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걸 막지도 않았고, 막을 수 있는 기제도 없었고요. (지음, 김옥자와의 인터뷰, 2009)

주류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빈집 살이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는 없다. 그들은 정해진 액수의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빈집'에 머무르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레이버(Graeber, 2014)가 “등가교환(reciprocity)”이라 부른 것에 근거한 이러한 사고는 '빈집'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은 투숙객들이 자발적으로 '빈집'에 내어준 '잉여분'이라는 사실을 지워버릴 뿐 아니라, '빈집'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자원을 기꺼이 들여온 투숙객들이 착취당하는 느낌마저 갖게 만든다.

특히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살림을 하찮은 일, 혹은 여자들의 일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살림은 '빈집'의 일상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가 된다. 공동의 즐거움을 생산하던 여러 활동이 부담스러운 노동이 되어버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몇몇 투숙객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좌절감에 '빈집'을 떠났고, 이런 상황에서 '빈집'은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는 침체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바꾸고 '빈집'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빈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빈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다. 논의 과정에서 투숙객들은 이 질문들이 '돌봄'을 향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 주인 없는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돌보는 자'로서의 주인(host)-되기

빈집은 모두가 손님이고 모두가 주인인 집이지요. (...) 따라서 빈집에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명실상부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손님맞이'의 권리=의무를 나눠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님맞이', 즉 환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빈집이 빈집이 아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빈집은 사라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지음, 빈집 홈페이지, 2010)

손님으로 '빈집'에 와서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적, 혹은 커먼즈적 관계의 일부가 되어 '빈집'의 주인 역할을 맡지 않는다면 '빈집'은 지

속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바꿈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공동생활에 관심이 없는 투숙객들을 주인-되기의 과정에 초대할 수 있을까? 논의가 지속되던 어느 날 투숙객들은 회의 중에 영어 단어의 주인(host)과 손님(guest)의 합성어인 고스트(ghost)를 이용해 고스트하우스라는 말을 만든다.

게스트지만 소비적인 손님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호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게스트인 동시에 호스트. 누구도 고정된 역할로 틀에 박히지 않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구성하면 보이지 않는 호스트가 곳곳에 숨어 있게 되는 셈, 또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우리들은?) 일종의 유령(ghost)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는. 그러니까 빈집이 고스트하우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현민, 빈집 홈페이지, 2009)

고스트하우스라는 용어는 빈집살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던 투숙객들의 빈집살이에 무관심한 투숙객에 대한 바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용어는 빈집살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빈집'(이라는 관계)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이며 이는 곧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투숙객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빈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내는 시간과 노동, 즉 상호 교환으로 포획될 수 없는 잉여라는 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빈집'마저 각자의 '소유물'을 상호 교환하는 관계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잉여의 흐름을 보게 만들 수 있을까?

이에 적극적인 투숙객들은 보이지 않는 노동, 정동, 선물물의 흐름이 '빈집'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에 많은 힘을 기울인다. "가사노동, 때론 좀 과하게 하세요!"라는 글에서 당시 투숙객이었던 디온(2010, 1월 26일)은 '빈집'에서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들(매니저 임명, 칠판과 포스트잇을 활용한 집안일 가시화, 대안화폐 발행을 통한 가치화의 노력)이 있었는지 묘사한다. 그녀는 특히 남성들이 구조적으로 감정노동을 포함한 집안일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감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는 '빈집' 바깥의 상식과 다른 '빈집의 상식'을 형성하기 위한 집합적 공부와 담론 생산, 공동의 일들을 가시화하는 노력 등으로 나타났다.

'빈집'에서 투숙객들로 하여금 살림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 하나는 잔소리였다. 예를 들어 내가 2013년 '빈집'에서 만났던 지훈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빈집'의 여러 활동에 참가하는 30대 청년이었다. 그러나 기존 투숙객들에 의하면 내가 그를 만나기 불과 반년 전에만 해도 지훈은 집안일은 물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도 취약했다고 한다.

지훈은 소위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집이 마치 스파르타 학원” 같아서 언제나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인데, 가난하고 자수성가했고. 제가 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를 내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계속 배가 아팠어요. (...)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관계도 나빠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어쩔 줄 모르고. 아무튼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였지만 어찌어찌 대학은 들어간 거죠. (지훈 인터뷰, 2014년 1월 3일)

다음은 지훈과 같은 '빈집' 투숙객이었던 노랑(22세), 그리고 명균(28세)과 나눈 대화의 기록이다.

노랑: 정말 서른 둘이나 먹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생활력이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빨래를 해서 그걸 바닥에 줄줄 펼쳐놨다니까. 말을 해도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넘어가기만 하고.

명균: 잔소리가 전혀 자극이 안 되는 거지.

연구자: 그럼 어떻게 해?

노랑: 그게, 우선 예를 들어서 하루가 한마디 던져. “지훈, 설거지 했어요?” 그럼 지

훈은 “아, 네”,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조금 있다가 현지가 “아, 지훈, 좀 하라니까요”, 라고 한 번 더 쳐줘. 그러면 지훈이 또 “아 네...” 그러면서 우물쭈물하거든. 그러면 내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웃음) 아무튼 누가 시작을 하긴 상중하로 계속 팍팍 쳐주는 느낌으로?

명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지. 다른 집 사람들이 와도, 요즘 지훈은 좀 잘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노랑: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아유, 요즘 지훈이 그러면서 어디서나 지훈이 뭘 어떻게 잘했고 못했고 막 얘기해. 그러면 지훈은 되게 멋쩍어하는 거지. (2013년 12월 22일, 살림집)

‘빈집’ 투숙객들은 지훈은 집안일만 나아진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훈은 자기 스스로도 “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기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물론, 동네에 버려진, 다들 죽을 것이라고 예상한 아기 고양이를 극진히 돌보고 건강히 길러낸다. 흥미로운 것은 “지훈에게 끝없는 잔소리”를 했다는 네 명의 같은 집 식구들(모두 20대~30대 여성)이 지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지훈과 같이 사는 것이 싫은 건 물론이고 무서울 정도였다고 고백하지만, 인터뷰 당시에는 모두 지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잔소리는 한 개인에게 그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의 감각을 바꾸는 과정이다. 지훈을 둘러싼 ‘빈집’ 투숙객들의 이야기는 ‘잔소리’가 근본적으로 정동적이고 관계적인 행위임을 드러낸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잔소리, 칭찬을 통해 개인에게 벌어진 변화, 즉 “지각생의 요리각성!”이라거나 “지비는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는가” 등의 ‘빈집’ 서사는 무수히 많다. 동시에, 일상에서 그들이 “빈집의 긍정적 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퍼뜨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침체기나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뜬금없이 잔치를 열고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는 것(공산주의)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활성화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정동적

활동들은 새로 온 투숙객들로 하여금 기존에 볼 수 없던 것('빈집'이 보이지 않는 돌봄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빈집의 일부인 커머너(돌보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체화의 과정, 혹은 빈집의 용어로 '고스트-되기'를 촉진한다. 하지만 '빈집'의 주체화 과정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빈집'의 원리는 '빈집'에 살지 않는 사람들, 즉 '타자'를 빈집의 잠재적 구성원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 '빈집'은 무엇인가? 타인과 나의 경계 및 가족의 새로운 구성

'빈집'은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지만, '빈집'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야만 한다. 하지만 손님들의 집인 '빈집'에서 공간을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투숙객들이 '주인'이 되는 과정은, '빈집'의 매일을 유지하고 재활성화하는 살림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뿐 아니라 커먼즈적 관계, 혹은 궁극적으로 타자를 돌보는 행위로서의 '빈집'을 확대하는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현실적으로 '빈집'에서 공간은 늘 부족했고 '빈집'의 개방성은 자주 위협으로 인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빈집'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투숙객의 수를 제한하거나 입주의 규칙을 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다. 즉, '빈집'에서는 공동체라는 것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욕망과 윤리들이 끊임없이 부딪쳤다.

그러나 '빈집'에 새로운 투숙객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포화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어느덧 공동체 내부에 규칙들이 생기고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빈집'의 투숙객들은 '빈집'이 무엇이고, 타인에게 공간을 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빈집에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이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서" '빈집'에 찾아와 "아무 질문도 없이" 받아들여졌던 경험은 중요한 윤리적 토대를 형

성했다.

처음 빈집에 왔던 날, ‘옆집’(빈집의 하나)에 자리가 있다고 그리로 안내받았어. 그때 옆집에서 날 안내한 사람이 이거저 설명해 주더라. 마루에 돈통이 있는데, 식재료나 공동으로 필요한 건 거기서 돈 꺼내서 사면 된다고 하고 일이 있다고 금방 나갔어. 그래서 나 혼자 거기 한나절 있었나. 되게 이상했지. 이 사람들 뭐냐.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모르는 거잖아.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나 혼자 거기 있는데도 엄청 환대받은 기분이 드는 거지. (몽 인터뷰, 2018년 5월 2일)

투숙객 모야는 블로그에 그들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빈집’을 시작했지만, ‘빈집’에 사는 동안 “빈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모야, 2010, 5월 14일). 물론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간을 타인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단지 결심의 문제가 아닌 몸의 문제, 개인의 경계를 바꾸는 문제이며 집합적인 ‘되기(becoming)’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빈집’ 투숙객들의 많은 글이 빈집살이에 적응하는 과정이 신체적 변화임을 암시한다. 냉장고 안의 음식, 양말부터 손톱깎이까지 여러 물건들이 서서히 경계를 넘기 시작하고, 디온(2009)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느새 “(애인이 아닌) 남자의 속옷에 손대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다. 심지어 옆방에 갓난아기가 오기라고 하면 모든 것은 일순간에 바뀌어야만 한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같은 것은 불가능한” 이 과정 속에서 그녀의 귀는 아기의 리듬에 “마술처럼” 적응했고, 아기에게 “약을 먹이거나 좌약을 넣는” 등의 여러 일들에 점점 더 능숙해진다.

흥미로운 것은 ‘빈집’ 투숙객들은 자신들이 서로와, 그리고 ‘빈집’과 적극적으로 연루되며 변화하는 과정을 종종 “오염”, “발효”, “숙성” 등의 화학적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는 ‘빈집’-하기가 집합적인 화학작용으로서의 되기, 즉 커머닝임을 암시한다. 이는 ‘빈집’ 투숙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식구가 되는” 과정인데, 이는 단지 혈연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아

니다. 이는 뒤에 인용된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인과 나의 경계”를 바꾸는 과정이다.

밖에서 볼 때 빈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모여 사는 것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다. 아니면 반대로,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색하고 힘들게 부대껴 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함께-살기는 그런 말로는 부족하다. 굳이 해명하자면 타인과 나의 경계, 가족의 새로운 구성 등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서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디선가 읽은 표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족 구성이 아니라 가족의 새로운 구성 아닐까. 이미 한집에 살고 있는 이 특별한 가족을 두고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가족과 다르다고 평가하는 건 너무 단순하다. 이 집에서는 혈연관계로 맺어지더라도 그 가족관계는 기존 가족관계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디온, 2009)

‘빈집’에서 벌어지는 가족의 ‘새로운’ 구성은 두 측면을 포함한다. 우선 ‘빈집’의 관계는 기존의 가족관계는 물론 ‘공동체’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관계들보다 훨씬 느슨한 것으로, 각각의 개인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노출의 의무를 포함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¹⁵⁾

명우 같은 경우, 심지어 간첩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어. 뭐 농담이긴 하지만. 빈집 살이도 벌써 몇 년이나 되고, 빈마을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정말 아무도 명우가

15) 연구자가 만난 ‘빈집’ 투숙객 중 ‘빈집’을 시작한 세대인 현재 40대 이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이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갈등은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절대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폭력까지 다양한 수준이었지만 이들이 원-가족에 대해 표현하는 공통적인 감각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깁깁한”, “뒹”과 같은 감정이었다. 반면 이들의 인식에서 ‘빈집’에서 만들어진 식구 관계는 “피로 맺어진 가족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가벼운” 것으로 일종의 “쿨한 간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원래 가족관계가 풀고 있는 “밀도 끝도 없는 기대나 요구”가 ‘빈집’에는 없다.

대체 몇 살인지, 본명이 뭔지, 뭘 하던 사람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아무도 몰라. 빈집이 원래 그런 거 원래 안 묻지만 살다 보면 대충 알게 되잖아? 근데 안 알리고 싶으면 안 알리고 살 수 있는 거지. (노랑 인터뷰, 2018년 5월 21일)

(빈집에서는) 여전히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끝끝내 잘 안되면 깨지면 되는거지. 아무도 그걸 탓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 오히려 더 잘 노력할 수도 있는 거 같아. 도저히 안 되겠으면 빈마을에서 집을 옮기면 되고. 사실 마을에서 서로 말 안하는 애들 꽤 돼. (재이 인터뷰, 2018년 5월 3일)

가정폭력 같은 걸로 갈 데가 필요한 사람들이 빈집에 올 수 있는지 문의 전화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어. 그런데 집 안에서 그러는 건 안보이잖아, 정말로. 그런데 빈집엔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은폐되는 폭력 같은 건 없는 거지. (모리, 인터뷰, 2018년 5월 17일)

‘빈집’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쿨한 간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빈집’의 투숙객들이 종종 ‘빈집’을 평범한 가족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폭력과 답답함과 비교하는 방식, 혹은 서로 사이가 나쁜 투숙객들이라도 ‘빈집’ 안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존하는 태도는 이러한 감각을 잘 보여준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위험’으로 인지되기도 하지만, 열린 공간으로서 ‘빈집’은 일종의 역전된 ‘안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동시에 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주는 환대를 실천한다.

이처럼 언뜻 볼 때 상반된 두 가지 방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상호의존의 관계로서의 ‘빈집’, 혹은 가족의 새로운 구성은 궁극적으로 ‘소유’의 형식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된다.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은 집과 집 안의 물건들에 대하여 굳이 무엇이 누구의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법적인 소유권은 주로 가장에게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가족구성원 모두는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 (...) 주거 공동체 빈집은 공유하기의 실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 가족이기 때문에 공유의 실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유의 실천이 가족을 만든다.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이 된다. (지음, 2010)

5. 마치며: 상호의존의 커먼즈를 만드는 협업으로서의 돌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윤추구'를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인간 살림살이의 핵심인 '살림'과 '돌봄'을 경제로부터 분리한다. 살림과 돌봄은 사적인 공간으로 축소된 근대적 '집/가족'에 갇혀, 여성의 자연적 활동으로 지정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비가치화·비가시화되며 착취되었다. 삶과 경제, 생산과 재생산, 일과 집, 자연과 문명 등 다양한 절단선들이 만들어 내는 분할은 삶이 언제나 복수의 타자에 의존해 있는 것, 빛진 것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생명의 근본적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돌봄을 삶의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돌봄윤리는 근대적 삶의 형식을 근본적으로 의문에 부친다.

'빈집'은 '임노동'을 중심에 둔 삶의 형식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탈주하고자 하는 커먼즈의 시도가 '일'과 '집'을 둘러싼 인식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뿐 아니라 '돌봄'을 둘러싼 인식론적 전환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사노동에 임금을" 요구했던 1970년대 여성운동을 회고하며 페테레치(Small의 인터뷰, 2018: 200)는 "집이야말로 우리가 일하는 공장"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운동이었다고 말한다. '빈집'의 초창기 투숙객들은 이런 관점을 분명히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사노동에 임금을 요구하는 대신, '빈집'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활동으로서의 '살림'을 가치화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임금노동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했다. 동시에 '빈집'은 '집'이 '공장'인 이유가 그곳에서 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가치들 즉, 임노동으로 환원 가능

한 가치들이 생산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봉사하는 특정한 주체성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많은 ‘빈집’ 투숙객들, 특히 남성들은 집에서 가족의 배경과 무관하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다. 교육이 가족 전체의 사회적 계층 이동, 혹은 유지의 수단으로 여겨져 온 한국 사회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지훈의 부모님은 엘리트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지훈은 모든 육체적·정신적 힘을 공부에 쏟아야 했으며 그 결과 자신과 타인을 돌볼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지훈은 스스로가 “유난히 예민”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이때 성공이란 분명히 박노자(2009)가 말하는, 집에서 폭군 노릇을 하더라도 돈만 잘 벌어들여 오면 되는 “씩씩한 남자”를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집은 지배체제에 복무하는 특정한 신체, 주체성의 양식을 생산하는 공장인 셈이다.

‘집’이 특정한 주체성과 관계의 양식을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공장이라면, 낯의 공간과 관계를 유지시키고 재활성화하는 살림과 돌봄이야말로 그러한 관계와 주체성을 생산하는 노동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살림과 돌봄은 주로 여성의 의무가 되고, 사랑, 돌봄, 모성 등의 단어는 가부장적 가족 모델에 뿌리를 둔 성별 분업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활용된다. 이 속에서 자신의 시간과 활동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으로서의 돌봄은 억압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복종적 행위로 변질되고, 때로는 통제와 지배를 위한 공격적인 욕망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봄을 복종적 행위나 의무, 폭력, 혹은 서비스로 변질시키는 가부장제적 자본주의 구조에서 탈주하고, 일상과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타자를 향한 정동적 노동으로서의 돌봄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빈집’이 구사한 전략은 한편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친밀한 공동체를 넘어서 타인을 삶의 공간에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관계에 당연시되는 위계와 속박을 지우는 것이었다.

‘빈집’을 누구든 언제든지 들고 날 수 있는 보다 자유로운 공간/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여행자의 공산주의를 일상에서 확장하고자 한 ‘빈집’의 기획에서

커먼즈는 개인과 공동체(가족) 간의 거리를 재조정함으로써 타자들과 위태로움을 나누는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느슨한 돌봄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즉, 이들은 거주와 가족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집'을 '소유격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집/가족은 소유물, 혹은 내부에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만들며 닫힌 폐쇄적인 관계가 아니라, 타자와 관계 맺고 서로를 연루하며 넓게 짜나가는 상호의존의 공간/관계로 구상되고 실천된다. 돌봄은 타인에게 곁을, 공간을, 자본을 내어주고 내부의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정동적 노동이자 상호의존의 그물망=커먼즈를 구성하는 수행적 행위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빈집'을 구성하는 돌봄은 공산주의적으로, 즉 능력에 따라 생산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투숙객들은 손님, 혹은 여행자로서 '빈집'이라는 커다란 선물(공산주의적 관계)의 일부로 초대받는다. 이들은 '빈집' 소개글에 쓰여 있듯이 "전에 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가꾸고 준비해 온 것들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베푸는 호의를 맘껏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 삶의 공간인 '빈집'에서 사람들은 자주 '빈집'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타자를 향한 활동인 돌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는 잠정적으로 영원하길 기대하는 커다란 선물의 순환으로서의 공산주의='빈집'을 항시적 위기에 빠뜨린다. '빈집'이라는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 온 사람들이 편재된 돌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이는 자신의 몸을 변화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즉, 빈집의 공산주의에서 '능력'이란 결국 '빈집'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적극적으로 연루되는 능력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경계를 바꾸고 타인과 다르게 관계 맺는 능력인 것이다.

'빈집' 투숙객들은 입주를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비슷한 신념이나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대신, 타자와의 상호의존성이 발생시키는 양면성과 불안을 적극 끌어안으며 공산주의적 관계망을 넓게 짜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돌봄은 돌봄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잠재적으로 초월될 수 있는 협업으로 나타난다. 이는 투숙객들을 상호돌봄의 관계에 참여시키는 방법일 뿐 아니라 투숙객들이 이러한 집단적 경험(커머닝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확장하는 집합적 ‘되기(becoming)’의 과정이다.

원고접수일: 2023.04.04.

1차심사완료일: 2023.05.23.

1차수정완료일: 2023.11.08.

2차심사완료일: 2023.11.22.

2차수정완료일: 2023.11.28.

3차심사완료일: 2023.11.29.

게재확정일: 2023.11.29.

최종원고접수일: 2023.12.04.

Abstract**Ethics of care in commons: Transitioning from the 'home/family' ownership to a caring commons via Bin-Zib, a co-housing experiment**

Didi Kyoung-ae Han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micro-subjectivation surrounding care and elaborates on a feminist ethics of care from the commons perspective. The commons is the most basic way of human livelihood based on 'precariousness', an existential condition of human beings. However, capitalism, which began with dismantling the commons, has subverted the purpose of livelihood and enclosed care, an act towards others, in a privatized realm of the modern home/family. Bin-Zib, a co-housing experiment aiming to revitalize commons in the middle of the city, not only challenges the dominant forms of work and home but also reveals care as a critical site of subjectivation. As Bin-Zib actively embraces the ambivalence of interdependence with others to expand a web of communism, participants are asked to recognize and participate in invisible care relations. Here, care emerges as a process of co-working for engaging people in commons and of collective 'becoming' through which they expand their ability to care.

Keywords: care, communism, commons, home/family, work, subjectivation

참고문헌

- 권지용. 2016. 「새로운 가족, 새로운 주거 그리고 공유주택에 대해서」. 《건축》, 제60권 6호, 15~18쪽.
- 그레이버, 데이비드. 2011. 『부채, 그 첫 5,000년: 인류학자가 다시 쓴 경제의 역사』. 정명진 옮김. 부글북스.
- 김경희·강은애. 2010. 「가족 내 돌봄책임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2호, 121~155쪽.
- 김옥자. 2009. 「이상한 나라의 빈집에는 누가누가 살까요」.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제911권 21~28쪽.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제51권 1호, 155~198쪽. ISO 690
- 김희강. 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제22권 1호, 5~30쪽.
- 네그리, 안토니오. 2004. 『혁명의 시간』. 정남영 옮김. 갈무리.
- 더 케어 콜렉티브. 2021.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 뒤비, 조르주·미셸 페로. 2002. 『사생활의 역사 4』. 전수연 옮김. 새물결.
- 디온. 2009.12.20. “주인 없는 집”에서 모두가 주인으로 사는 법. 《프레시안》.
- _____. 2010.1.26. “가사노동, 때론 좀 과하게 하세요”. 《프레시안》.
- 랑시에르, 자크. 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우리시대의 새로운 지적 대안담론』. 양창렬 옮김. 길.
- 마경희.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여성주의 복지정치를 위한 시론」.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2호, 85~116쪽.
- 미즈, 마리아.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여성, 자연, 식민지와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최재인 옮김. 갈무리.
- 박노자. 2009. 『씩씩한 남자 만들기: 한국의 이상적 남성성의 역사를 파헤치다』. 푸른역사.
- 박윤혜·백일순. 2021.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위스테이 별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31권 1호, 208~245쪽.
- 박은진. 2012.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실험: 해방촌 ‘빈집’ 게스트하우스(guests’ house)」.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호. 2008.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과 향후방향」. 《월간 복지동향》, 제119권, 38~41쪽.
- 백영경. 2017a.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 연구 ECO》, 제21권 1호, 111~143쪽.
- _____. 2017b. 「복지와 커먼즈: 돌봄의 위기와 공공성의 재구성」. 《창작과 비평》, 제45권 3호, 19~38쪽.
- 송다영. 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119~152쪽.

- 윤영광. 2014. 「탈정체화의 정치: 랑시에르 정치철학에서 주체(화) 문제」. 《문화과학》, 통권77권, 295~318쪽.
- 이아승. 2020. 「신자유주의 시대 돌봄노동의 가치: 전업주부의 돌봄노동 가치 인식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가족과 문화》, 제32권 3호, 54~77쪽.
- 이진경. 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 정용택. 2016. 「'돌봄'의 정치경제학: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사회효과'를 중심으로」. 《뉴 래디컬 리뷰》, 제69권, 251~288쪽.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 최희경. 20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8권, 31~58쪽.
- _____. 2011.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9권, 113~138쪽.
- 플라니, 칼. 1998. 『사람의 살림살이』. 박현수 옮김. 풀빛.
- 한경애. 2022. 「마을 공동체에서 도시적 커먼즈로: 동아시아의 시선으로 보는 도시적 커먼즈」. 《공간과 사회》, 제32권 4호, 11~44쪽.
- _____. 2023. 「도쿄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역사적 형성과정: 불안정성과 프레카리아트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6권 1호, 53~71쪽.
- 허라금. 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한국여성학》, 제22권 1호, 115~145쪽.
- _____. 2018. 「관계와 돌봄의 철학: '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사회와 철학》 제35권, 67~90쪽. DOI: 10.22858/sp.2018..35.004
-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 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2권 1호, 243~276쪽. DOI: 10.22734/ECO.22.1.201806.008
- Barnett, C. 2005. "Ways of Relating: Hospitality and the Acknowledgement of Other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9, No.1, pp.5~21. DOI: 10.1191/0309132505ph535oa
- Barnett, C., & Land, D. 2007. "Geographies of Generosity: Beyond the 'Moral Turn'." *Geoforum*, Vol.38, No.6, pp.1065~1075. DOI: 10.1016/j.geoforum.2007.02.006
- Butler, J. 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 of Violence and Mourning*. Verso Books.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4.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Vol.49(suppl_1), pp.i92-i105. DOI: 10.1093/cdj/bsu006
- Chatzidakis, A., Hakim, J., Litter, J., & Rottenberg, C. 2020. *The Care Manifesto: The*

- Politics of Interdependence*. Verso Books.
- Dalla Costa, Mariarosa et al . 1999. *Women, Development, and Labor of Reproduction: Struggle and Movements*. Africa World Press.
- De Angelis, M., & Harvie, D. 2014. "The Commons." *The Routledge Companion to Alternative Organization*. pp.280~294.
- Engels, F. 1942. *The Origin of the Family*. Current Book Distributors.
- Fantone, L. 2007. "Precarious Changes: Gender and Generational Politics in Contemporary Italy." *Feminist review*, Vol.87, No.1, pp.5~20. DOI: 10.1057/palgrave.fr.9400357
- Federici, S. 2004. *Caliban and the Witch*. Autonomedia.
- _____. 2018.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PM Press.
- _____. 2020. *Revolution at Point Zero: Housework, Reproduction, and Feminist Struggle*. PM Press.
- Fernández Arrigoitia, M., Ferreri, M., Hudson, J., Scanlon, K., & West, K. 2023. "Toward a feminist housing commons? Conceptualising care-(as)-work in collaborative housing. Housing." *Theory and Society*, Vol.40, No.5, pp.660~678.
- Fisher, B., Tronto, J., Abel, E. K., & Nelson, M. 2003.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Family: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Routledge: London. pp.29~54.
- Fortunati, L. 1995. "The arcane of reproduction." *Housework, prostitution, labour and capital* (Vol.1, pp.6~176). Autonomedia.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rz, A. 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Verso.
- Graeber, D. 2013. "It is Value that Brings Universes into Being." *HO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Vol.3, No.2, pp.219~243. DOI: 10.14318/hau3.2.012
- _____. 2014. "On the Moral Grounds of Economic Relations: A Maussian Approach."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Vol.4, No.1, pp.65~77. DOI: 10.1177/1468795X13494719
- Hall, E.T. 1968. "Proxemics." *Current Anthropology*, Vol.9(2-3), pp.83~108.
- Han, D. 2018. "Turning a Home into the Commons: The Micro-Politics of Subjectivations in a Cohousing Community in Seoul."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19, No.1, pp.372~385. DOI: 10.1080/14649373.2018.1497895
- _____. 2019. "Weaving the Common in the Financialized City: A Case of Urban Cohousing Experience in South Korea." in Chen, Y., and Shin, H.(eds.).

- Neoliberal Urbanism, Contested Cities and Housing in Asia*. Palgrave Macmillan.
- Han, D.K., and Imamasa, H. 2015. "Overcoming Privatized Housing in Korea: Looking through the Lens of Commons and the Common." in Dellenbaugh, M., Kip, M., Bieniok, M., Müller, A., & Schwegmann, M.(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äuser. pp.91~100.
- Hankivsky, O. 2004. *Social Policy and the Ethic of Care*. UBC Press.
- Hardt, M. 1999. "Affective Labour." *Boundary 2*, Vol.26, No.2, pp.89~100.
- Hardt, M. & Negri, A. 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
- Kollontai, A. 1920. "Communism and the Family." Contemporary Publishing Association.
- La Deriva, P. A. 2004. "Adrift through the Circuits of Feminized Precarious Work." *Feminist Review*, Vol.77, No.1, pp.157~161. DOI: 10.1057/palgrave.fr.9400162
- Linebaugh, P.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Liberties and Commons for Al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rey, I. 2015. *State of Insecurity: Government of the Precarious*. Verso.
- _____. 2017. *Governmentality and Self-Precarization: On the Normalization of Cultural Producers*. Transveral.
- Macpherson, C. B.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K. 1973a. *Capital: volume I*(Vol. 1). Penguin UK.
- _____. 1973b. *Grundrisse*. Penguin Books.
- Mauss, M. 2002.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Routledge.
- McEwan, C., & Goodman, M. K. 2010. "Place Geography and the Ethics of Care: Introductory Remarks on the Geographies of Ethics, Responsibility and Care." *Ethics, Place and Environment*, Vol.13, pp.103~112. DOI: 10.1080/13668791003778602
- McKinnon, K., Hill, A., Appel, M., Hill, D., Caffery, J., & Pamphilon, B. 2022. "Reflections on Reconfiguring Methods During COVID-19: Lessons in Trust, Partnership, and Care." *Frontiers in Sustainable Food Systems*, Vol.6, <https://doi.org/10.3389/fsufs.2022.751612>
- Mitropoulos, A. 2005. "Precari-Us?" *Mute,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Vol.1, No.29, pp.88~96.
- Mumford, L. 1961. *The City in History: Its Origins, Its Transformations, and its*

- Prospects* (Vol.67). Houghton Mifflin Harcourt.
- Negri, A. & Casarino, C. 2008. *In Praise of the Common: A Conversation on Philosophy and Poli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eilson, B., and Rossiter, N.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25(7-8), pp.51~72. DOI: 10.1177/0263276408097796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 Ranci re, J. 1992. "Politics, Identification, and Subjectivization." *October*, Vol.61, pp. 58~64.
- Small, R. 2018. "An interview with Siliva Fedirici." in Bumbs, A.P-Sycamore, M.B. *Feminism in Motion: Voices for Justice, Liberation, and Transformation*. AK Press.
- Tronto, J.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London: Routledge.
- Tsing, A. L.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sher, P. 2012. "Feminist Approaches to a Situated Ethics." In *Situated ethics in educational research* (pp.22~38). Routledge.
- Wainwright, H. 2012. "From Labour as Commodity to Labour as a Common." P2P Foundation <http://p2pfoundation.net/From_Labour_as_Commodity_to_Labour_as_a_Common>
- Weber, A. 2019. *Enlivenment: Toward a poetics for the Anthropocene* (Vol.16). MIT Press.

빈집 웹사이트와 팀 블로그

- 모야. 2010.05.14. "빈집과 주거운동".
- 빈집. 2008. "대문의 소개글".
- 지음. 2010.10.07. "집 공유하기, 가족되기".
- 현민. 2009. "빈마을 공동체에 대한 단상"에 댓글.

지음 개인 블로그

- 지음. 2008.2.13. "먹고 살 궁리".